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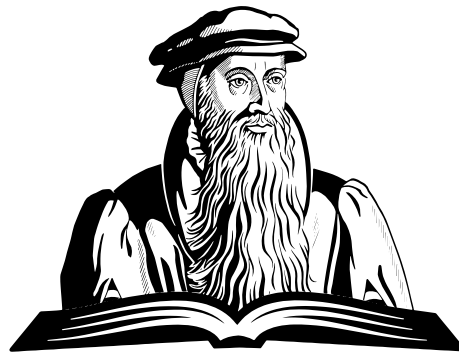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15: 시편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15

## 시편

###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는 영감된 노래의 영구적인 책을 교회에 주십니다.

### 본문: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44).

## 강의 스크립트 15

이 강의 15장은, 제목이 “시편”입니다. 어떤 멜로디가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되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음악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어떤 음악에 붙이면 그 단어를 암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음악은 효과가 좋습니다. 노래는 우리를 빛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각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노래책을 주셔서 암기하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의 중간쯤에 이 노래의 책을 두셨을까요? 시편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으며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흥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의 의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짓게 하셨는데 이 책은 바로 이 노래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을 오는 모든 세대의 자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로 성경의 정경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지정해 놓으신 목적과 시편 안에 포함시켜 놓으신 내용에 대해서 탐구해 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시편이 감당하는 역할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위해서 한 장을 따로 떼어서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노래의 책으로서 이 책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 책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편이 가지는 중심적인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책이 정말로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시편이 단순히 성경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시편이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평균 19구절마다 한 번씩 시편이 인용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신약성경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 만으로도, 우리가 시편과 친숙해져야 할 이유가 있지만 시편 자체가 성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시편이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농축된 형태로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율법, 예언, 복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포함된 모든 측면과 성경의 모든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의 모든 부분을 비롯하여 끝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은 구약계시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사이에 기록된 시편도 있습니다. 몇몇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역사를 되풀이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시편은 영감어린 노래의 영원한 교본으로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시편은 예수님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사도들과 사도적인 교회들은 시편을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시편은 교회가 사용했던 유일한 찬송가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몇 세기 동안 장로들은 150편의 시편 전체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이 교회에서 불려지도록 계획하셨는데 이는 남은 모든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은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와 독일과 멕시코와 그 외의 모든 곳의 교회들이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듯이 각자의 언어로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드림으로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시편도 역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일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불렀던 동일한 영감된 찬양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각각의 신자들의 삶에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시편 주석의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도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어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거울을 보듯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시편 속에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소망과 염려와 당황스러움 등 사람의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모든 감정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과 두려움과 승리와 신뢰와 소망과 회개의 때와 다른 모든 신자의 삶의 경험의 순간을 위하여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신자의 삶에서 시편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로, 시편에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바실리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은 모든 신학의 개요로서 영혼을 위한 모든 약이 비치된 약국이며 사람들이 처함 모든 상태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리를 가진 백과사전이다” 이것은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했던 루터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실리가 말했듯이, 시편에는 좋은 교리가 가득합니다.

시편에 있는 신학은 평생동안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은 총 다섯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시편1-41편이고, 둘째는, 42-72편이며, 셋째는, 73-89편이고, 넷째는, 90-106편이며, 마지막으로, 107-150편입니다. 처음 네 권은 모두 송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섯째 책은 다섯 개의 찬양 시편의 절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주요한 저자인데 모든 저자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시편1편과 2편은 두 개의 절반을 형성하면서 전체 시편의 서론의 기능을 하는데 전체 시편에 스며들어 있는 주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시편2편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신자들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여덟 개의 시편은 아크로스티픽입니다. 이 말은 연속되는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데 유대인 순례자들이 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고 다시 들려주는 역사적인 시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5-106편과 뒤에 나오는 135편-137편이 있습니다. 또 회개의

시편도 최소한 14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죄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데 51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몇몇 시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오실 그리스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메시아 시편으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42, 54, 69, 72, 110, 118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를 계시하신 약간의 시편도 강조해야 합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시편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장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립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짧은 장에서 시편을 7번이나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가진 모든 측면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있고 그리스도의 겸비와 승귀 모두가 가진 다양한 측면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분의 사역과 배신당했던 사건과 그 분의 속죄와 죽음 그리스도의 장례와 부활 승천과 통치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재판관이며 목자로서 찬양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보다 시편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시편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불완전 할 것입니다.

시편은 복음에 있는 구속의 적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전가와 용서와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시편에는 복음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은 영감된 선교사의 찬양과 같습니다. 시편67편이 이에 대한 중요한 예가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분의 속성을 비롯해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계시입니다. 시편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전체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통치권에 대한 찬양으로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넘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를 가리키며 마지막 심판날과 다가올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요점에 관한 마지막 사항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영감되지 않은 찬송과 이 하나님의 노래를 구분하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름하여 저주시입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악한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히브리어로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고 반대로 의인과 악인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또 축복과 저주를 다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7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찬양에 대한 첫번째 언급을 보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들은 대부분의 현대 예배찬송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과 그 분의 이름과 그 분의 성품과 그 분의 생각과 그 분의 방법과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인이었던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욕망과 생각과 감정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그것과 잘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림 위에 대고 베끼는 종이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세요? 전체 시편에서 저주시가 가지는 위치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사항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사악한 대적들이 멸망당하도록 신자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의로운 자의 구원과 기쁨을 구하는 시편들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신자의 마음과 뜻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139:19-22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 들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영감되지 않은 찬송에는 이와 같은 주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래를 사용했던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완전하신 공의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

판하시고 멀하실 때 성도들이 “알렐루야”라고 노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노래로서 시편이 진정으로 충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점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영감된 찬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로 찬양하는데 있어서 영원한 지침으로 사용 하라고 시편을 주셨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의 찬송가이며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기초를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야말로 찬양에 사용되는 노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언과 찬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배를 위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었습니다. 사무엘하23:1,2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1:16과 사도행전2:29-31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편90편을 썼던 모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과 같은 사람들은 선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9:9과 다른 곳에는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고 말합니다. 역대상25장에도,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손들이 예언을 했다는 의미인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 들이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다시 조금 후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의 통치 하에서 일어났던 구약의 영적인 개혁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감된 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하 29:30은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여전히 기준이 됩니다. 잉글랜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모든 규례나 경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그 분이 요구하신 대로 그분의 권위가 그 명령 안에 있음을 분별합니다. 선지자의 직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또 영감된 찬양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영감 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정경에 속한 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제공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있는 영감된 노래의 완전한 저장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용하도록 허락하신 것 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유일하고 권위적인 지위가 있으며, 하나님은 예배 중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105:2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된 노래를 모아서 제공하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정경을 읽기를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외경이나 다른 어떤 글로 성경읽기를 대체해도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를 사람들의 노래로 대체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노래를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불러야 할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예배 찬송”이라고 적힌 걸표지를 가진 책을 건네 준다면 여러분은 그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가지고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주시고 내용도 정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은 읽기 위한 목적이요, 시편은 찬송을 부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도서는 기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은



세례를 위해 주신 것이고 빵과 포도주는 성찬을 위해서 또 선포하는 은사는 설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3:16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본문인 에베소서 5:18,19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의미하는 세 희랍어 단어는 모두 헬라어 번역 시편의 주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하나의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표지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바울은 시편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라는 단어를 볼 것입니다. “신령한” 이라는 단어는 노래라는 단어를 꾸미는 말입니다. 혹은 이 형용사는 세 단어 모두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신령한”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감된 글을 의미하는 경우가 25차례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3 장에서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교리들과 모순되기보다는 이 두 본문, 곧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5장은 다른 곳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시편은 모든 세대를 위한 완전하고 영구한 찬양의 책입니다.

셋째, 시편의 충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시편은 찬양의 영구한 지침으로서 온전히 충족합니다. 무엇이 충족한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노래에서 아무런 부족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이 이 시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의 모든 삶을 포괄하며 그 사람의 정서와 영혼의 감정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경우에 적합한 시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시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편이 부족하다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22:3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셨던 노래를 노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우리는 그 분을 향해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시편을 더욱 더 의미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교회보다 시편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고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과 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종종 시편에도 잘 나옵니다. 시편141편은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분향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묘사가 분명합니다.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이 쓴 것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사방을 살피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찾더라도 다윗의 시편보다 이 목적에 어울리는 더 좋은 노래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마치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서 부르시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것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이었던 위그노들은 시편찬송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한가지 아름다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글을 보면 시편 찬송 이야말로 프랑스 전역에 성경적 신앙인 종교개혁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신자들은 시편을 암송했고 프랑스 전역에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을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이 찬양소리는 가벼운 모임이나 공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물론이고 길가를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과 밭에서 땅을 일구는 농부들과 그들의 가정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혁파 군대



도 전쟁에 나가면서 이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높여 시편을 부르도록 했고 경건한 사람들이 췌기처럼 적군을 관통할 때 시편68편의 노랫소리가 대포소리처럼 그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 속에 시편을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히 거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매일 매일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시편을 암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1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을 밤낮으로 암송하고 그 결과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책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평생동안 집중해서 이 시편을 연구하고 마스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영감된 노래책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솔로몬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